

생명지킴 학교 184곳 운영

전북자치도교육청, 정신건강 고위기학생 지원 강화 교육과정 연계 생명존중 교육 연 6차시 이상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위기학생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마음치유·생명지킴 학교 184개교를 운영키로 했다. 특히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명존중 교육을 연 6차시 이상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학부모와 교원을 위한 학생 마음건강 교육자료도 매월 분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또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고위기 학생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계속된다.

정신건강 문제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상담·진단·입원 치료가 가능한 병원형 위(Wee)센터 2개 기관(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위탁)을 이용하는 경우 치료비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병원 방문에 거부감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한 긴급 위기지원단, 가정폭력과 부모 학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보호를 위한 가정형 위센터(Wee)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 케이트키퍼 감사단(21명)을 활용한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원 역량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최근 다양한 원인으로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신건강 위기 학생 조기 발견과 치유를 통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와 함께 도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후원 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교육복지대상 학생 장학금 후원 증서 전달

고교 1학년 10명에 매일 10만원 3년간 정기후원 약속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지부장 차덕현)와 함께 도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후원 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차덕현 지부장, 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사용자 연합회장, 남정현(주)서연인테크 상무 등이 참석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도내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조손가정 등 교육복지 대상 고등학교 1학년 10명을

선정, 3년간 월 10만원씩 정기 후원하기로 약속했다.

앞서 2019년 12명, 2021년 12명을 선정해 3년씩 정기후원을 통해 현재까지 총 8,4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2019년부터 나눔을 실천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의 정기후원이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도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통해 저소득가정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의대 증원분 50%만 수용한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올해보다 29명 늘어난 171명 정원조정위원회서 결정...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

전북대학교가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올해보다 29명 늘어난 171명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는 29일 교무처장 주재로 정원조정위원회를 열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으로 29명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후 내부 결재 등을 거쳐 대학 협

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모집인원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달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전북대 의대 신입생 정원은 기존 142명에서 58명 늘어난 200명이었다.

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여면서 전북대 역시 대학내 의견을 받아들여 증원분의 50%만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공간정보 혁신인재 양성

전북대 도시공학과-LX공간정보연구원 '맞손' 6월 개최 '공간정보 아이디어 경진' 등 공동 추진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학과장 장태연)는 디지털 100만 인재양성을 위해 LX공간정보연구원(원장 광희도)과 손

을 맞잡았다.

이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26일 LX공간정보연구원에서 장태연 학과장과

광희도 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간정보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북대 도시공학과는 2022년 국토교통부 공간정보혁신인재양성사업에 선정, 공간정보AI 연계전공을 신설·운영하는 등 공간정보산업 혁신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유한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미래 국토·도시를 위한 공동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협업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올해 열릴 '2024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 지원과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공간정보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태연 학과장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LX공간정보연구원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지욱 공간정보혁신인재양성사업단장은 "미래지향적 공간정보 분야를 선도한다는 사명감으로 공간정보 분야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는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와 LX공간정보연구원이 지난 26일 LX공간정보연구원에서 공간정보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태국 고교생 대상 한국어어문화 교육 체험과정 성료

전주대-전북문화관광재단 공동

전주대학교 LINC 3.0 사업단(단장 김상진)은 최근 태국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현지 체험단에 지원한 고등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단기 연수 과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주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전북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최근 태국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현지 체험단에 지원한 고등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단기 연수 과정을 실시했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전북문화관광재단과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경북청 등의 서울 주요 거점지를 둘러보고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국의 의식주 체험 프로그램과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의 예절 교육, 전주대학교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인재 양성 교육으로 이뤄졌다.

K-Culture Odyssey 프로그램은 유경민 센터장(LINC 3.0 사업단 산학연공유협업센터)이 개발한 전주전통문화 산업화 일환으로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1~2주간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익힐 수 있는 글로벌 교육 관광 프로그램이다.

특히, 한국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과의 포레 교류 매칭을 통해 해외 연수생들이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한국 문화를 접하고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돼 방학을 이용한 외국 학생들의 신청이 늘고 있다.

박진배 총장은 "지·산·학 협업을 통해 외국에 있는 한류팬들이 뿌리 깊은 한국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희망한다"며 "이 프로그램이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유치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문화 중심의 교류가 글로벌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의 다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안경 나눔으로 교육기부 동참'

도교육청-밝은세상연합회 '사랑의 안경 나눔' 전달식 저소득가정 학생 640명에 무료 시력검사·안경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9일 5층 회의실에서 밝은세상연합회(회장 조석봉)와 '사랑의 안경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조석봉 회장, 구미희 초록우산 전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밝은세상연합회는 저소득가정 학생에게 무료 시력검사 및 안경을 제작·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320명씩 총 640명의 학생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도내 16개 밝은세상연합회 안경점에서 시력검사를 받

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력 보정이 필요한 저소득가정 학생에게는 1인당 10만원 상당의 안경을 제공한다.

조석봉 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안경 구입과 교체 시기를 놓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저소득가정 학생들에게 시력검사와 안경을 지원할 기회를 마련해 준 밝은세상연합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복지를 적재적소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사회 초년생 직장 초기 적응 교육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7일 신규 입사 예정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커리어 UP, 실무역량 강화' Dream-JOB 온보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 초년생들의 경력설계 및 조직 내 신속하고 원활한 적응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지식, 기술, 문화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 사회 초년생들의 직장 적응력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획했다.

이날 교육은 신규 입사 예정자를 대상으로 업무 수행 시 공통적인 문서 작성 능력과 업무 환경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 중심의 컴퓨터 활용 능력(EXCEL 데이터 활용 등) 향상 실습형 교육으로 운영됐다. /장은성 기자

'깊이있는 학습 실현' 수업혁신 지원단 운영

전북자치도교육청,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9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4 수업혁신 지원단 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업혁신 지원단은 개념 기반 탐구수업을 위해 개발한 수업자료를 전북수업샘터 사이트에 탑재해 도내 초·중·고교사들에게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

특히 이날 설명회는 3명의 리더교사 수업사례를 통해 개념 기반 탐구수업의 실재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한편 수업혁신 지원단 중 희망 교사 100여 명은 '수업나눔 선도교사'로서 학교밖 수업나눔을 실천, 일반 학교로 연구 결과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인대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수업혁신 지원단에 참여해 준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학생들의 깊이 있는 학습을 견인하는 개념 기반 탐구수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대전과기대 기업융합센터 공동 특강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기업융합센터(센터장 유성구)는 29일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이너지 산업 기업융합센터와 공동으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및 참여학생 60명이 방문, 전주비전대학교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두 대학 간 산학협력 및 학생교육 교류와 LINC 3.0 사업의 우수성과를 공유했다.

전주비전대학교 유성구 교수의 '자율주행 원리와 전망'을 주제로 공동 특강을 진행, 전주비전대의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시설과 장비들을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LINC 3.0 사업을 통해 구축한 기업융합센터(ICC) 성과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통해 각 대학의 ICC 우수 사례 및 향후 RISE 사업으로의 전환을 대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